

참고문헌

경북노회 역사편찬위원회, 「경북노회사」, 대구: 경북노회, 1971.
 경북노회 70회사 편찬위원회, 「경북노회 70회사」, 대구: 한국출판사, 1988.
 경북노회 40년사 편찬위원회, 「경북노회 40년사」, 대구: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경북노회, 1993.
 김주태, 「서문로교회20년사」, 대구서문로교회고등학생회 편, 「밀알」제14호, 1971, 97-10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장로교사(고신)」, 부산: 고신출판사, 1988.
 대구서문로교회면려청년회, 교회창립20주년 특집호 「좁은문」3호, 대구: 서문로교회, 1971.
 서문로30년사 출판분과위원회, 「교회설립30주년기념 서문로30년사」, 대구: 서문로교회, 1981.
 서문로교회 40년사 편찬위원회, 「서문로교회 40년사」, 대구: 서문로교회, 1991.
 서문로교회, 「2003년 교회요람」, 대구: 서문로교회, 2003.
 서문로교회 「당회록」 1-6권.
 오병세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편, 「새벽이슬 같은 은총의 날들: 오병세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문집」, 부산: 현대출판인쇄사, 2001.
 이성수, 「경북노회 어제와 오늘(1953-1993)」, 대구: 삼광출판사, 1993.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교단50년사 총회역사 편찬위원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2002.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한 생애

박복달 권사

(1917-1993)

Exhorter Bok-Dal Park: Her Life for the Glory of God

권 오 헌 목사 | 불꽃교회, 고신대 겸임교수
 Adjunt Prof. Oh-Hun Kwon

1. 이력	_ 19	2) 집회 강사로서	_ 19
1) 모친의 신앙	_ 19	3) 전도지로서	_ 19
2) 신력	_ 19	4. 고신의 성도로서	_ 19
3) 학력	_ 19	1) 독신 수도자의 거룩한 삶	_ 19
2. 여전도회 활동	_ 19	2) 눈물과 기도의 사람	_ 19
1) 서문로교회 여전도회	_ 19	3) 고신 교단을 아끼는 지도자	_ 19
2)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_ 19	5. 지도력 관련	_ 19
3)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1) 서문로 교회에서의 지도력	_ 19
선교사 파송	_ 19	2) 전국여성도들의지도자로서	_ 19
3. 여성 부흥사로서	_ 19	3) 여전도회장을 혼자 너무 오래	
1) 성경 교사로서	_ 19	했다는 비판에 관해서	_ 19

주요어 | 박복달, 경북노회, 여전도회, 서문로교회, 부흥운동, 여성부흥사

요약문 |

현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는 지도력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때에 박복달 권사의 신앙과 생활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지도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귀한 사표라고 할 것이다. 그는 남녀차별의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이 강하게 살아 있는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신교단과 한국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우뚝 선 분이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치 아니했으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박복달 선생 앞에 가면 존경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분이였다.

70년대의 일화인데 한번은 필자가 박복달 권사댁에 갔더니 대구 박복달이라고 해놓은 편지가 배달되었다고 누가 주소를 이렇게 적었나 하시던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박복달 권사라기 보다 박복달 선생으로 더 잘 알려진 박복달 권사는 이처럼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신앙과 삶으로 유명했다. 그는 명향식 선생, 조수옥 권사 등과 함께 고신의 여성 인맥을 이끌었고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경북노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중심에 박복달 선생이 있었다. 그의 성령체험과 말씀에 관한 간절함 기도의 삶, 사랑이 넘치는 생애, 서문로교회에서 출교되었을 때 김주오 장로와 함께 박복달 집사도 같이 출교되었고 고려신학교와 고려파의 진리 운동에 온전한 동참과 헌신을 보였다.

Abstract

Miss Park, Bok-dal is one of the greatest figures that Korean church has ever seen in her history. Her faith and life has shown us what the true church leadership should be, especially in times like these suffer for lack of it. Even though she had walked through man-centred Korean society-even in the church-which underestimate woman's role in leadership, neither old or young in the presence of her could reject giving respects to her, because she was so unique in the spiritual world.

권호현, 경북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학생신앙운동 간사로 10년을 봉사한 후 영국의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에 관한 연구로 선교학 석사를 받았다. London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연구 과정을 수료했고, Westward College in Cambridge에서 복음전도와 세계선교 과정을 수학했다. 귀국하여 1998년 10월에 대구 불꽃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있다. 1999년부터 고신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겸임교수로 있다.

70년대의 일화인데 한번은 필자가 박복달 권사댁에 갔더니 대구 박복달이라고 해놓은 편지가 배달되었다고 누가 주소를 이렇게 적었나 하시던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박복달 권사라기 보다 박복달 선생으로 더 잘 알려진 박복달 권사는 이처럼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신앙과 삶으로 유명했다. 그는 명향식 선생, 조수옥 권사 등과 함께 고신의 여성 인맥을 이끌었고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경북노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중심에 박복달 선생이 있었다. 그의 성령 체험과 말씀에 관한 간절함 기도의 삶, 사랑이 넘치는 생애, 서문교회에서 출교되었을 때 김주오 장로와 함께 박복달 집사도 같이 출교되었고 고려신학교와 고려과의 진리 운동에 온전한 동참과 헌신을 보였다.

1. 이력

박복달 권사는 1917년 12월 21일 대구에서 한의사를 하던 부친 박상준과 모친 김길문 권사 사이에 4녀 중 2녀로 태어났다. 박봉희, 박복달, 박봉현, 박복안 4자매 중 막내 복안만 결혼하고 자매는 평생을 독신으로 주를 섬겼다. 1993. 9.27 소천할 때까지 평생을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진리 운동을 위해서, 또 진리 운동의 본산이었던 고려파 운동을 위해서 진력했다.

1) 모친의 신앙

부친은 교향이 광주였고 그 시대에 하와이를 다녀올 정도로 개화된 인물이었다. 모친 김길문 권사는 당시 신명여교에 다니던 큰 딸 박봉희(후에 권사, 평양신학교 졸업, 일본서 전문학교 졸업, 수예전공, 시모노세키에서 전도사로도 사역한)를 만나러 갔는데 달성공원 앞에서 빨간 책 들

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이 서문교회 주일예배였다. 당시 염복남 목사가 서문교회 당회장으로 설교하였는데 첫 설교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갔다. 생전에 박복달 권사 자매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 네 딸을 다 합해도 어머니의 10분의 1도 못따라간다고 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 김길문 권사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절대로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구걸하러 나온 자가 오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주었고, 항시 집에는 정신이 이상한 노숙자가 두세명이 상주할 정도였다. 노숙자나 행려환자를 보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고, 교통사고를 당한 무연고자의 시신을 보면 몸소 수습하였다고 한다. 서문로 교회의 은퇴전도사인 신정순 전도사는 박 선생의 동생 박봉현 권사와 5살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신전도사의 부친 신연경 영수는 김길문 권사를 가리켜 산채로 승천할 분이라고 늘 말하셨다고 한다. 전도에도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러 자갈마당의 창녀촌에 가면 다른 사람은 다 조소하는데 이 김 권사가 가서 시골서 올라온 아가씨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안고 울면 회개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준 김길문 권사(후에는 고신에 권사 제도가 없어져서 집사)의 교훈의 핵심은 신사참배하면 지옥간다고 신사참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늘 자매들에게 가르쳤고, 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자녀들에게 심어주었다. 아침에 딸들이 등교하여야 하는데도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져서 끝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였던 김길문 권사는 임종시에 자녀들이 유언을 한 마디 남기라고 강청했지만 하나님의

1) 필자가 들었던 예배에 관한 다른 일화는 박복달 선생이 어린 시절에 예배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무서워 가지 못하고 치마에 소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어머니가 우리 딸 너무나 착하다고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박복달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이 외에 더 내가 첨가할 말이 있겠는가 하고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다. 당시의 주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서 우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 집에 가면 회개하고 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우는 집이라는 택호는 박복달 권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박선생이 사는 동네에 가서 박선생집을 찾으려면 우는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되었다.

2) 신력

박복달 권사는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여 1931년에 학습을 받고, 1933년에 세례를 받았다. 1978. 12. 24 서문로 교회 권사로 임직되었다. 1945년 해방되기 20일 전에 박봉희 박복달 자매는 신사참배로 피해다니시던 최일출 목사님(최일영 목사의 형님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최 목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칼 두 자루를 받고 우태숙 선생집에서 봉희, 봉현 자매를 불렀다고 한다. 우태숙, 박봉희, 박복달 이 셋은 최일출 목사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그 때는 교인들도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하던 시대였는데 최목사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눈물로써 회개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최일출 목사는 해방후 한국을 휩쓸었던 호열자에 돌아가셨다(동생 최일영목사와 한 집에 살았는데 제수씨도 그 때 소천했다.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큰 역사를 한 목사로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해방당시에 서문교회를 다니던 박복달 선생은 해방 후에 미군 군목 출신으로 서문교회를 목회하던 명신흥 목사의 권고로 진해 신학강좌에 참여하게 되면서 고려파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명신흥 목사는 오병세, 박복달 두 선생을 진해로 보냈다. 당시 서문교회에는 출옥 성도였던 한상동 목사와 손양원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여 큰 은혜를 끼쳤다.

3) 학력

1936년 3월 경북고녀(지금의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 박복달 권사는 권사라는 호칭보다 박복달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가 대구 남산교회가 운영하던 명도학원(3년제 초등학교 속성과정)과 포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가르치던 경력이 있었고 집사도 되기전 선생으로 불릴 때부터 많은 감화를 끼쳐서 이미 박복달 선생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도 그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박선생으로 불리웠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명도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우리 교단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과 여전도사 사역으로 이름을 떨친 권임규 전도사, 양소선 전도사가 제자였다. 후에 진해 성경강좌에 참석했고 고려신학교에 입학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졸업은 1955년에야 하게 된다.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로는 고재만, 박원섭, 서영수, 심상동, 우명준, 이기진, 장기목, 전재린, 정운학, 정효은, 차문현, 최준섭, 최현선, 최훈, 추국원, 홍신규, 강순옥, 박복달, 서연신, 최병애 등이 있다.

2. 여전도회 활동

1) 서문로교회 여전도회

창립 초대 발기 회장으로 시작하여 1987년 은퇴할 때까지 36년간을 회장으로 섬겼다. 필자가 전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임원개선 때가 되면 회장 유임하기로 동의 제청이 있고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어서 유임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

1965년 발기 위원이면서 강사였고 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은퇴할 때까지 23년간 연임하였다.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순회전도사와 사역자를 파송하여 15개 처소에 교회를 세웠다.

3)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 선교사 파송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의 초대 회장 박인순 전도사의 뒤를 이어 2대회장이 된 후 10년간 회장으로 봉사하다가 자꾸 연임하기 때문에 회칙을 수정하여 2년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1982년 10월에 조수옥 권사에게 회장을 물려주었다. 그 이후에도 소천할 때까지 전국 여전도회 고문으로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3. 여성 부흥사로서

1) 성경 교사로서

서문 교회에서도 박복달 선생은 집사로서보다 장년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가르칠 때마다 통회 자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분반을 해도 자꾸 반이 차고 넘쳐 교회에서는 청년여전도회를 따로 분립하도록 하였다. 청년 여전도회 초대 회장이 된 박복달 선생은 청년여전도회 성경공부를 인도했는데 주일 오후의 성경공부만으로는 시간이 모자라 월요일에 회집하게 되었다. 박복달 선생이 인도하던 월요일 성경공부 받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으로 거르고 오후 4-5시가 되어야 마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2) 집회 강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자 여전도회 주최의 심령부흥회에 박복달 선생은 강사로 많이 초빙을 받았고 가기만 하면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다. 서문로 교회, 부산 서부교회, 부산 삼일교회, 부산 부민교회(1952.4.14 -19), 서울 흥천교회(후에 성원교회가 된), 밀양 삼문동 교회(지금 밀양 삼문교회), 조야교회(이 집회의 결과로 조야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제주 서광교회 등 많은 곳에서 집회를 인도했고 집회 때마다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특별히 박복달 선생은 집회 강사를 맡으면 식사를 폐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면서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선생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다. 그러나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처럼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해쳤고 강제로 휴양을 보내기도 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늘 집회를 했는데도 말씀을 증거하면 그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와서 얼굴을 만져보면서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고 하곤 했다는 일화가 있다. 신정순 전도사는 박선생이 정순아 우리 예수 바로 믿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바로 믿는 것이냐고 물으니 친구 언니였던 박 선생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였다. 박복달 선생의 평생의 가르침의 주제는 참된 회개였는데 단순히 죄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이었다.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고대했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회개의 영이 충만한 분이였다.

3) 전도자로서

한 번은 동대구역에서 여승들이 박복달 권사를 알아보고 박선생님이 아니냐고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선생님을 알고 인사를

하느냐고 하니 한 때 박선생이 집회를 다니시느라고 건강을 너무 상해서 해인사에 딸린 여승들의 암자에 휴양하시라고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여승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박선생의 강론에 감화를 받았던 여승들이 나중에 박선생을 알아보고 인사한 것이라고 하였다.²⁾ 한 번은 신정순 전도사 박선생 집에 아침에 찾아갔더니 웬 청년을 붙들고 전도를 하고 있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저녁에 갔더니 아직 그 청년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본 적도 있었다고 하니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일화라고 할 것이다. 서문로 교회 장로였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고 후에 서문로 교회 장로가 된 변중수 선생도 박복달 선생의 전도에 감화를 받아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³⁾

4. 고신의 성도로서

1) 독신 수도자의 거룩한 삶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자신의 모든 생의 욕심을 포기하고 살았다. 독신생활은 이러한 주님 사랑의 표현이었다. 평생을 주님을 신앙으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항상 재물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으며, 재산이 국가에 들어갈 때 정당한 보상요구라도 공익을 위해서 내 재산이 쓰여지는 것이라고 해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가가 고아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가

2) 이 일화는 필자가 박복달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80년대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변중수 장로는 처형의 권면으로 박복달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야기도 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한 박복달 선생의 기도에 그 마음이 녹았다고 한다.

가 재산을 기부채납받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바뀔 때도 육영학사 재산의 일정부분만 채납하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자는 이들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국가에 전부를 기부 채납하는 정직한 영혼의 소유자였다.⁴⁾

2) 눈물과 기도의 사람

박복달 선생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언급하면서 평생동안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적이 없다고 했다. 필자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말년에 다락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적이 있는데 외과의사인 서문로 교회 류광수 장로가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한 결과 평생을 자리 보전하고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새벽에 새벽기도에 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응답될 줄로 알았고 그날 새벽으로 새벽기도회에 나가서 완치되었다. 어머니 김길문 권사의 뒤를 이어 박복달 선생의 집은 우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갔다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 집의 기도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은 한 여성도의 고백에 따르면 마치 버선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하셨다고 한다.

3) 고신 교단을 아끼는 지도자

박복달 선생은 교단의 모든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는 고려신학교에서 교단의 신학을 이수했고, 교단의 가르침을 평생 벗어나지 않았다. 초창기에 은혜받고 성령체험과 함께 진동이 임했을 때도 성경을 벗어날까 두려워 절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셨다고

4) 필자는 이 때의 일을 박복달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

했다. 다만 그 때부터 음성이 남자의 음성처럼 굵어졌다. 교단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전국 여전도회 회장으로 제직할 때는 교단의 선교 정책을 따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다. 신학교를 위한 헌금에는 전국여전도회가 항상 앞장섰다. 고아들의 집인 육영화사를 설립한 것도 허순길 목사가 권고하자 전혀 경험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시작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이루었다.

5. 지도력 관련

1) 서문로 교회에서의 지도력

석원대 목사의 위임투표에 부결에 관한 일화는 지금도 많은 소문이 있지만 박복달 선생의 지도력이 얼마나 강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한다. 서문로 교회 여전도회를 설립하는 시로부터 회장이 되어 은퇴할 때까지 36년간을 회장으로 있었고 박복달 선생의 지도력에 이의를 달거나 대항하여 회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⁵⁾

2) 전국 여성도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독신으로 주를 섬겼는데 박복달 선생의 삶이 본이 되어 많은 여신도들이 독신으로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사별한 이들도 재혼하지 않고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하는 신앙의 사표이었다.⁶⁾ 신정순, 김계초, 박봉

5) 백합동산 30년-전국여전도회 연합회 30년사, 2002.9.20, 총회출판국, pp158-163.

6) 필자는 학생신앙운동의 간사로 있는 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학생신앙운동 간사로 불렀고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교단의 여성지도자의 맥의 계승을 위해서 여학생들 혹은 여간사들에게 독신사역을 권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권해도 되지 않던 기억이 있다. 이는 아마 필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 성은주, 권임규, 양소선 등 독신 전도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고려파의 여성들에 대한 박선생의 지도력은 절대적이었다. 경북여전도회나 전국 여전도회에서의 지도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이었고, 박선생님 앞에 서면 다들 고개를 숙였다.

3) 여전도회장을 혼자 너무 오래했다는 비판에 관해서

박복달 선생은 전국여전도회장 10년, 경북여전도회장 23년, 서문로 교회 여전도회 회장을 은퇴할 때까지 36년간을 연임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자면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만 2대 회장부터 규칙이 바뀌어연임이 제한될 때까지 10년을 한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경북여전도회 연합회와 서문로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니 10년간은 박복달 선생이 혼자서 이렇게 3기관의 장으로 있었고, 또 서문로교회 전도회와 경북여전도회 연합회는 설립시로부터 은퇴할 때까지의 기간 내내 회장으로 봉사한 것이다. 이를두고 혹자는 혼자서 너무 독재를 한 것이니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첫째로 박복달 선생은 연합회장의 직이 다른 사람의 위에 서는 자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다만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자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에 전혀 모순이 없이 전체 연합회 회원들이 수고와 봉사를 더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봉사했다. 둘째로 실제로 박복달 선생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지도력을 당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도회 연합회는 총회 때마다 만장일치로 회장을 재추대하게 되었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은퇴할 때까지는 그 지도력과 헌신을 견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전국연합회는 회장은 박복달 선생이 회장으로 있는 중에 유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칙이 개정되므로 10년만을 봉사한 것이다. 당시의 박선생의 지도력으로 만일 본인이 규칙 개정을 반대했다면 결코 규칙개정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은 규

칙이 개정되자 규칙에 따라서 직책을 물려주고 고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생이 활동하실 당시의 여전도회 연합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일종의 선교단체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인다. 연합회는 교회연합기관이지만 경북여전도회나 전국여전도회 연합회는 각교회의 여전도회가 동시에 비슷한 성장을 보인 가운데 연합운동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기 보다는 박복달 선생을 중심으로한 고려파 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의 시대적이고 교회사적인 소명에 의해서 발기되고 각교회로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박복달 선생의 지도력이 수십년을 자연스럽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친의 서울대 합격과 관련한 일화

저희 부친도 이러한 가르침에 영향으로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주일에 예배를 빠뜨리고 면접하고 합격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하여 새로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참고문헌

서문로 교회 30년사, 1981.8.26, 서문로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출판분과
 서문로 교회 40년사, 1991.8.26, 40년사 편찬 위원회
 경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30년사, 1994.4.1. 월간고신
 백합동산 30년-전국여전도회 연합회 30년사-, 2002.9.20, 총회출판국
 경북노회 40년사(1953-1993), 1993.5.25,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서문로 교회 신정순 은퇴전도사의 구술, 2003.4.2. 서문로 교회 당회실

장기려박사의 신앙과 사상

Faith and Thought of Dr. Ki Ryu Jang

이상규 교수 | 고신대, 신학과
 Prof. Dr. Sang-Gyoo Lee

1. 생애와 삶	_ 68
2. 그의 삶의 기초로서의 기독교 신앙	_ 73
1) 무교회주의의 영향	_ 73
2) 기독교 유일성과 신앙적 다양성	_ 78
3. 그가 남긴 것	_ 82
1) 기독교적 가치(Christian Values) 고양	_ 82
2) 삶을 통한 한국교회 개혁	_ 84
3) 기독교적 사회참여 방식의 모델 제시	_ 86
4)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중요성 고양	_ 88
4. 맺는말	_ 90